

## 서방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

베티 인트레이터

칸타 아흐메드(Qanta Ahmed) 박사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땅(In the Land of Invisible Women, Sourcebooks, 2008)>에서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슬림 여인으로서 겪은 영적, 문화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잘 차려 입은 사우디 부부가 그들의 어린 딸에게 보여주려고 알 파치노(Al Pacino)의 영화 “데블즈 애드버킷(The Devil’s Advocate)” 비디오를 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흐메드는 기록합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영화는 파치노가 사탄의 역할을 하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용이었다. 그룹 섹스 장면이 등장한다. 폭력은 극단적이며 현대 뉴욕을 부티나고 화려하다는 인식에 대비되게 묘사하였다(405 쪽).”

그리고 아흐메드는 딸에게 왜 그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지를 질문합니다. 그 부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 딸이 서방, 특히 미국의 아주 나쁜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딸이 그토록 부패하고 천한 세상의 참 모습을 알게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가 바른 정보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할리우드 영화 속의 섹스, 부패와 폭력이 미국 사회를 바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거기서 미루어기독교 문화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성경적, 유대-기독교적 가치관을 언론과 연예 산업이 전세계로 흩뿌리는 “큰 음녀(계 17)”의 형상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 이스라엘의 새 신자들

이스라엘 정부 고위층의 배경을 가진 새 신자 M 과 이전에 이스라엘의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E,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 Y 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사람이 신약성경과 아세르의 책 <누가 아브라함과 점심을 먹었는가?>를 읽을 때 계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과 겸손, 기본적 제자훈련과 공동체적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간증이 계속 순전하고 능력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타넬 하우스 아웃리치 센터(Netanel House outreach center)에서의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라헬(Rachel)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난민 문제에 대한 대니 아얄론의 영상

대니 아얄론(Danny Ayalon)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제 기독교 사회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적극적인 크네셀(이스라엘 국회)의원이자 외무부 차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에서 본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의 역사에 대한 5분짜리 비디오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오른쪽 하단의 “CC”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국 언어로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에스더 금식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달력에 “타아니트 에스더(Ta’anit Esther)”일을 잊지 말고 표시해 두십시오. 전통 유대력에 맞춰서 저희는 3월 7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금식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혹은 공동체, 기도 모임이나 기도의 집도 이 역사적이고 전략적인 중보기도 행사에 이곳 이스라엘 현지의 메시아닉 성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조만간 전달될 것입니다.

## 세상의 빛

아세르 인트레이터

예슈아께서는 너무 경이로우시고 그분의 메시지는 너무도 순결하여, 종종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지 하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불공정해 보입니다. 이에 예슈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 3:19 –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슈아께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은 주님의 사랑, 은혜와 순결입니다. 그 분께서 인류에게 나타나신 것과 당신의 메시지가 도덕적 시험이 됩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앞으로 나올 것이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들은 그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복음은 솔로몬의 지혜와 같습니다(**왕상 3**).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그의 앞에 왔을 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여인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정한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말했습니다. 무고한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두 여인의 마음에 대한 도덕적 시험이었습니다. 예슈아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눅 23**). 한 명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죄한 이의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새로운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일진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면 일부 아이들은 웃을 것이지만 다른 아이들에겐 동정심이 생길 것입니다. 고통 당하는 무고한 아이에 대한 반응이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의롭고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슈아께서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빛”은 **요한복음 8장**의 “빛”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위선적 종교인들은 돌을 던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그녀와 함께 간음을 저지른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으며(레 20:10) 그 여인은 분명히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아께서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 하던 자들을 꾸짖고 나서, 그녀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8:11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군중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8:12 -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본문에서 빛은 예수아 그 분 자체가 아니라, 용서와 공의라는 그 분의 성품입니다. 은혜와 순결 사이의 완벽한 조화가 예수아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 짓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과도히 비판적이 되거나 심히 관대하게 될 때는 예수아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공산주의가 북한 사람들 마음에 미국에 대한 미움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1960 년대에 미국의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저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예수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를 용서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의 메시지를 거절하게 됩니다. 성적 부도덕과 반역에 세뇌된 자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